

간바 폭포

높이 110m, 폭 20m 인 간바 폭포는 주고쿠 지방에서 제일가는 폭포 중 하나입니다. 폭포 정상에서 선반처럼 튀어나온 검은 화산암 위로 물이 연달아 흘러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중국의 산수화 속 세계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. 물의 흐름은 폭이 좁은 바위에 의해 분할되면서 폭포 바닥으로 떨어집니다. 이 바위는 상류를 향해 헤엄치는 거대한 물고기처럼 보이기에 ‘잉어 바위’ 라고 불립니다. 이 그림엽서에 넣어도 손색없는 풍경 덕분에 마니와의 폭포는 ‘국가 지정 명승’으로 지정되었으며, ‘일본 폭포 100 선’ 에도 선정되었습니다.

마니와의 폭포는 100 헥타르에 달하는 자연공원 안에 있습니다. 잘 정비된 좁은 길이 폭포의 기슭까지 이어지며 길가에서는 바위투성이인 강바닥을 흐르는 얇은 여울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길옆에 늘어선 단풍나무, 침나무, 느티나무는 여름에는 푸르고 무성하며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바뀝니다. 매년 봄에는 후쿠자쿠라라고 불리는 벚꽃의 한 종이 작은 국화를 연상시키는 풍성한 꽃을 피웁니다. 한 꽃은 몇백 장에 달하는 꽃잎을 지녔으며, 각각의 꽃잎이 중심부의 어두운 자주색에서 가장자리의 연분홍색으로, 서서히 밝은색으로 바뀝니다.

좁은 길은 다마다레 폭포(‘물방울이 수정 구슬처럼 떨어지는 폭포’라는 뜻)라고 불리는 자연의 풍경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폭포를 지냅니다. 시냇물이 이끼로 덮이고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를 따라 조금씩 흐르며, 이후 똑똑 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밑에 있는 도랑으로 흘러듭니다. 그 모습이 비가 초가지붕을 흘러 떨어지는 모습과 닮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

이 공원에는 약 160 마리의 야생 일본원숭이가 살고 있습니다. 일본 고유종인 일본원숭이는 전 세계의 모든 비인간 영장류 중 중에서 가장 북쪽에 서식하는 종으로, 서식 지역은 혼슈 최북단까지 이릅니다. 마니와의 폭포에 있는 일본원숭이 무리는 산의 높은 곳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, 항상 폭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행운이 따르는 분은 봄에 어머니가 칭얼거리는 아기를 안고 달래는 모습이나 여름에 어린 원숭이가 시끄럽게 서로를 쫓는 모습, 가을에는 확실한 교미기의 신호인 심홍색 얼굴을 한 성인 원숭이를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원숭이는 먹을 것을 뺏으려고 하므로 공원 내에 음식물 반입은 제한됩니다.